



은혜로 QT

7월 10일.토요일.

묵상말씀. 전도서 9장 13절-18절.

13. 내가 또 해 아래서 지혜를 보고 크게 여긴 것이 이러하니 14. 곧 어떤 작고 인구가 많지 않은 성읍에 큰 임금이 와서 에워싸고 큰 흥벽을 쌓고 치고자 할 때에 15. 그 성읍 가운데 가난한 지혜자가 있어서 그 지혜로 그 성읍을 건진 것이라 그러나 이 가난한 자를 기억하는 사람이 없었도다 16. 그러므로 내가 이르기를 지혜가 힘보다 낫다마는 가난한 자의 지혜가 멸시를 받고 그 말이 신성되지 아니한다 하였노라 17. 종용히 들리는 지혜자의 말이 우매자의 어른의 호령보다 나으니라 18. 지혜가 병기보다 나으니라 그러나 한 죄인이 많은 선을 패게케 하느니라

묵상제목. '지혜로움에 담긴 선함과 어리석음에 숨겨진 악함'

오늘 나누는 말씀에서 전도자는 지혜로움에 담긴 선함과 어리석음에 숨겨진 악함 간의 긴장 관계를 전하고 있습니다. 본문에는 가난한 지혜자의 도움으로 큰 위기에서 벗어난 작은 성읍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위기가 사라지자 지혜자에게 돌아가야 할 보상 대신 오히려 지혜자는 잊혀집니다. 이제 지혜는 무시되고 이제는 필요치 않게 됩니다. 대신 어리석음이 그 자리를 대신 채워가며 지혜로 일궈진 선함, 지혜 위에 세워진 행복이 파괴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 어리석음에 숨겨진 악함을 깨우치게 됩니다. 마주하는 위기와 험난한 상황에서 우리는 하나님의 지혜를 간구합니다. 하나님의 가르침과 훈계를 갈망하며 위기와 고난을 극복하려 있는 힘을 다합니다. 어느새 위기와 고난이 걷힌 상황에서는 간구와 갈망의 정도가 누그러뜨려질 때도 있습니다. 긴장이 느슨해질 때 하나님의 지혜를 가볍게 여기는 어리석음을 범하며 교만으로 이어집니다. 하나님의 지혜와 하나님의 능력을 무시하고 부정하는 수렁으로 빠져들게 됩니다. 어리석음은 가벼운 실수, 부끄러운 흠결이 아니라 큰 죄로 이어지는 위험한 결정으로 이해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래서 사탄은 '어리석음'이라는 장치를 통해 우리가 하나님의 지혜로 살아가지 못하도록 훼방합니다. 그래서 우리를 죄에 빠지게 합니다. 이런 맥락에서 매일 말씀과 기도로 하나님의 지혜를 얻는 신실함이 왜 필요하고 왜 우리에게 강하게 요구되는지를 깨우치게 됩니다. 지혜로움과 어리석음의 영적 긴장 관계를 잘 파악하시고 이 긴장 관계 속에서 하나님의 지혜로 언제나 영적인 승리를 이어가는 우리가 되기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을 위한 기도.

주일 예배를 통해 공급되는 하나님의 지혜와 능력에 힘입어 선과 악, 지혜와 어리석음을 분별할 수 있기 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며 변함없이 하나님 보시기에 지혜 있는 자의 삶을 살아가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